

# 『제1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장을 다녀와서...』



최영화 | 경남모직공업(주) 대리

지난 10월 6일 오후에 공문하나가 도착했다. “선진 환경 기술시찰 및 세미나 참석”에 관한 내용으로 참가희망자는 6일까지 fax로 참석유무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참가하고픈 마음이 있긴 하지만 서울이라는 거리의 부담감과 마감이 6일이라 좌석이 있을까란 의구심에 마음을 접기로 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정보수집의 거리를 좁혀보고자 참석의사를 밝혔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 새벽 5시에 맞춰 둔 알람이 울기 전에 눈이 뜨인다. 6시 30분 출발이니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챙겨 먹었다. 거의 시간에 맞춰 집결장소에 도착하니 차 앞에서 황수남 회장(경남협의회)님께서 반기신다. 목례와 미소로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커피 한잔을 들고 차에 오르니 이미 많은 협의회원 분들이 자리하고 계신다.

황 회장님 이하 30여명의 협의회원들을 태운 버스는 가을 새벽길을 3시간여 달려 첫 목적지인 전북 전주에 우리들을 내려놓는다.

선진환경 기술시찰지로 들른 ‘하이트 맥주’ 전주 공장은 전과정이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져 286명의 종업원이 연간 34만kl의 맥주를 생산한다고 한다.

맥아와 호프, 그리고 암반수의 원료는 드라이밀 과정, 담금과 발효, 숙성 및 여과 과정을 거쳐 생맥주, 병맥주, 캔맥주의 제품으로 태어난다. 대부분의 공정이 CONVEYER에 의해 이동되고 주입 및 포장까지 자동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병맥주 생산공정에서는 이용 후 다시 공장으로 입고 된 맥주병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가동되고 있는 세척 공정이 인상적이었다.

소비자인 우리가 다 마신 맥주병에 담배꽂초나 기타 쓰레기 등을 넣지 않는 것 또한 환경보호에 한 몫하는 길인 것 같다.

생산공정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들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는데 생물학적 처리시설인 폐수처리장은 고농도 폐수와 저농도 폐수로 분리 처리되고 있었으며, 13,000m<sup>3</sup>/일의 시설로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폐수 발생량의 저감 등으로 6,000~6,500m<sup>3</sup>/일의 폐수가 발생·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폐수처리량이 줄어든 만큼 일부 유흥시설의 사전 점검 및 보수로 노후시설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를 미리 차단하고 있었다. 또한 고농도 폐수처리 시설의 일부인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는 열 공급시설에 보내어져 버려지는 폐수

에서 연료라는 제품으로 생산되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견학시설의 일부로 꾸며진 생맥주 시음장에서의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다시 서울을 향하여 출발이다.

설명회 시작이 한참 지나서야 도착한 일행은 연합회 이상호 회장님을 비롯한 지인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후 자료를 받아 설명회장에 들어섰다. 테이블에 마련된 좌석은 이미 주인을 찾은 듯 했고 임시로 마련된 듯한 뒤쪽 의자에 앉아 설명을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표자의 설명을 열심히 메모해 가며 사뭇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 같다. 농도기준으로 관리하던 수질오염물질을 좀 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관리 방식인 오염총량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추진현황과 향후 진행상황이 전반적으로 설명되었다. 각 강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이 허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량을 산정하고 그 강 유역 내에 허용된 오염물질량을 지자체별, 오염자별로 할당한 후, 그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는 부과금 부과나 개발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한강 수계의 경기도 광주시는 2004. 7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는 관할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계획 수립 적용에 있다. 현재 총량제 적용물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5)을 대상으로 하며, 총량제 관리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환경기초시설과 대용량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처리용량과 종별에 따라 수질 TMS를 조기 구축할 방안이다. 대상항목은 폐수처리 방법에 따라 측정기기가 부착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법 체제정비 및 현실에 맞는 총량

제의 검증과 평가 그리고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 우리 환경기술인들은 현업에서 생산공정 개선이나 친환경 원료사용, 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 처리수의 재활용 등 폐수발생량을 저감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책설명에 이어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이 이어졌다. 환경기술인의 날은 오염물질 10% 저감운동과 기술력 10%향상을 위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였고, 이는 국가환경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환경기술인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 또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것이다.

이 날을 기념하고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경기술인들이 노력하고 준비해 왔는지 선배 환경기술인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다. 환경기술인으로 지정 원년인 오늘 제 1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자긍심이 생긴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환경기술인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행사중 있었던 환경기술장 시장식에서는 우리 경남협의회 부회장님이신 두산인프라코어(주)에 근무하시는 신도재 차장님께서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은장을 받으셨다. 환경기술인만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는 가장 으뜸이 환경기술장이 아닐까? 모두 축하하느라 어수선한 틈을 타서 우리 협의회 회원들도 기념사진한 컷을 남긴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추진하시는 일에 파이팅을 보낸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아침 어스름한 새벽 하늘과는 달리 점점 짙어져 가는 어둠속에서 하나, 둘 불빛이 밝혀지고 그 불빛들 속에서 긴 하루의 피로를 잠으로 풀어본다. 